

건강 칼럼

무치악 임플란트,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치료 효과 극대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는 단순 심미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치료다.

무치악 상태는 단순히 치아가 없는 문제가 아닌, 음식 섭취의 어려움, 발음 장애, 잇몸뼈 흡수, 안면 윤곽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저작기능 상실로 인해 음식 섭취가 제한되며, 틀니를 사용한다고 해도 단단한 음식 섭취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잇몸이 계속 닳아 맞지 않게 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치아는 발음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앞니가 없으면 ‘ㅅ, ㅆ, ㅈ’ 등의 발음이 흐려지고, 말할 때 공기 새는 소리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치아가 빠진 부위의 잇몸뼈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뼈 흡수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오랜 방치 시 임플



최재용

고르다치과의원 잠실점 대표원장

란트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얼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는 가장 효과적인 치과 치료가 될 수 있다. 우수한 고정력과 저작력, 장기간 사용 가능하며,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적용하면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치료 기간 역시 단축됐다. 환자

의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컴퓨터로 가이드를 제작해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존 방식보다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편이다.

무치악 환자는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많아,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려할 경우, 정교한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을 갖춘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3D CT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 오차 없이 정교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절개 범위가 최소화되면서 출혈과 부기가 줄어들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경 손상이나 주변 치조골 손상의 위험이 적어 안전성이 높다.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D CT, 구강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가야한다.

사설

김제 원평의 주현미

가수 주현미는 KBS 가요무대 출연 횟수가 가장 많은 가수다.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주금부는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났지만 4살에 대만민국으로 이민을 왔다.

한 의사였던 아버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한약재 사업을 했다.

주현미는 1961년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 출신의 한국인이다.

지금도 김제 원평에는 주현미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살았던 집이 있다.

원평시장 내 ‘서울약방’이 바로 주현미가 어려서 즐겨 지냈던 곳이다. 주현미의 친할머니 역시 한국인이다.

주현미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것은 집안에 한의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친정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모두 한의원

을 운영했다. 주현미도 원래는 한의대를 가려고 했다.

그러나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약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 서울 중구 필동에서 ‘한울약국’을 차렸다.

당시 그녀는 메들리 앨범 쌍쌍파티를 발매하여 돌풍을 일으켰다. 무려 300만장 이상이 팔렸다.

주현미는 1985년 1집 앨범 ‘비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했다. 1985년 약국 문을 닫고 가수 생활에 전념하게 된다. 2020년 5월 35주년 기념으로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주현미의 남편은 한국 록그룹 비상구(EXIT) 보컬리스트 출신이자 조용필 밴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였던 임동신이다.

주현미의 아들 임준혁(1991년생)은 버블리 음대 출신이고, 래퍼로 활동했다. 예명은 단테이다. 딸 임수연(1998년생)은 어머니를 따라 가수로 데뷔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에 ‘촉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북한군 포로 문제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는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인은 한국행 의지를 처음 밝혔다.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올 수 있는 지에 대해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원하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

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입장을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는 복잡해진다. 전쟁 포로에 관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관련국들은 전쟁이 끝나고 지체 없이 포로들을 석방해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종전 즉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로 돌려보내야 하고, 포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팬실베이나아 숲에서 발견된 알비노 암사슴



5일(현지 시간) 미 팬실베이나주 존스타운 인근 숲에서 알비노 암사슴 한 마리가 수사슴 두 마리 주변에 여유롭게 앉아 있다. 3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알비노 사슴은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젤렌스키, 자유세계의 참된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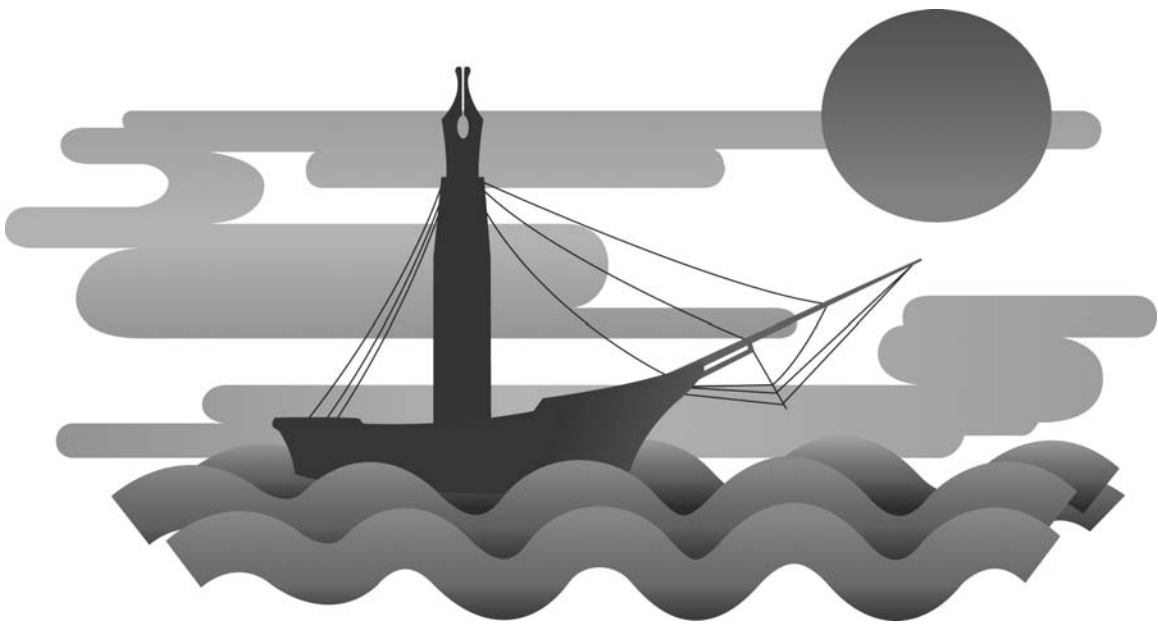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밖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양지를 담수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